



자료사진9 마산탄약고 모형에는 도면과 달리 47개의 탄약고가 표시되어 있고 베이스캠프는 현 본부건물이 있는 관솔정 인근과 더불어 차룡단지 두 군데였다. 야전정비공장(field management facility)은 현 사격장입구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사격장건설계획은 없었다.

이같은 정황을 볼 때 탄약고공사계획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음을 알 수 있다. 흙을 덮는 이 글루식 탄약고의 흙 공사가 일정보다 훨씬 늦어졌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예산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탄약고의 절반을 취소해야 했다. 당연히 계약회사들의 불만청구가 이어졌다. 44공병대대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세 계약회사들은 74년까지 4년 동안 일했다.⁴⁾ 또한 마산과 진해 사이의 철도본선에 이미 설치된 부두 박차에서 선로까지 한국 국철과의 217,000달러 계약이 지연됨으로서 항만 및 탄약고 단지는 원래 계획에서 많이 부족한 채로 종결되었다.⁵⁾

미육군은 하드 케이스 폭탄이나 네이팜탄과 같은 소프트 케이스 폭탄을 보관하기 위해 8셀 모듈 3개(총 24개의 탄약고)를 요구했다. 또한 관통핀과 부품보관에 사용하기 위해 3~4개의 버틀러형 건물(조립식 야외저장건물)도 요구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이러한 모든 시설을 해당지역의 현재 도로와의 연결에 필수적인 포장도로가 필요했다. 1974년 19군수지원사령부는 조사를 통해 마산에 8셀 모듈 2개(총16개 탄약고)와 4개의 야외저장건물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

4) Nicolai Kryloff with Joshua Pollarine and Lindsey Weaver, *BUILDING STRONG IN KOREA-A History of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Far East District*. (U.S. Army Corps of Engineers, Far East District Camp Humphreys, South Korea 2019), p.104

5) Earle Whitmor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ENGINEER DISTRICT FAR EAST 1957 to 1975*, (Seoul: Far East District, 1976), pp.95-107참조

은 있다고 판단했다. 총 예상 비용은 예비비, 암석 굴착, 도로 및 주차공간을 포함하지 않고 \$1,216,000였다. 전체 계획이 74년 12월 9일 태평양중양탄약관리사무소로 전달되었다.⁶⁾

3. SALS-K와 마산탄약고 이양

마산탄약고 건설이 한참 진행되던 중요한 한미간 협정 하나가 체결된다. 1974년 11월 25일 미국소유탄약을 한국시설에서 저장관리하는 한미단일탄약보급체계(SALS-K)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이는 이미 미국동공병대에 진해/마산 프로젝트사무소가 막 설치되던 1971년부터 시작된 협상이었다.

대소 봉쇄를 위한 미국의 대외원조는 국제정세와 함께 변화돼 왔는데 마셜계획(1948년 해외원조법), 상호방위원조법(1949년), 국제개발법(1950년 초), 상호안전보장법(1951~1960)을 거쳐 지금은 대외원조법(1961년 제정)에 의거해 제공되고 있다. 대외원조법은 상호안전보장법과 달리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명확히 구분하고 경제원조를 우위에 두었지만 이전의 해외원조와 마찬가지로 대소 봉쇄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대외원조법(FAA) 제2부에 의한 ‘군사지원’은 미국정부가 군사물자, 군사용역 또는 군사목적의 기금을 무상이나 준무상의 형태로 외국에 제공하는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군사지원’은 군사원조계획(MAP), 국제군사교육훈련계획(IMET), 잉여방위물자계획(EDA), 대외방위물자비축계획(SDA), 경제원조기금계획(ESP), 평화유지활동계획(PKO) 등 6가지 계획(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다. ‘대외방위물자비축계획’(SDA계획)은 우방 또는 외국의 전시에 대비하여 해외에 전시군사물자(War Reserve Stock)를 비축해두는 계획이다.⁸⁾

이에 의해 1971년 주한미군사령부지휘그룹과 한국 국방부 사이의 일련의 논의 후에 한국에서 통합 탄약 공급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의되었다. 71년 12월 미국 소유 재고에 대한 책임과 감시를 제외한 모든 재래식 탄약 임무를 한국 육군으로 이양하기 위해 한국 육군과 협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은 합동탄약조정그룹(JACG)을 구성했다.

73년 11월 제7차 합동탄약조정그룹(JACG) 회의에서 SALS-K에 따른 탄약지급에 대한 책임과 절차를 다루는 합의각서(MOA)가 초안되었다. 합의각서초안 및 관련 의정서는 미태평양육군(USARPAC)에 전달되었으며 의견 및 변경사항과 함께 육군성에서 합의각서를 승인했다. 미태평양육군사와 육군성간에 소통을 교환한 후 협정의 언어 및 조항에 관해 육군성은 미태평양육군사에서 제안한 변경사항이 포함된 합의각서를 승인했다.

74년 8월에 검토를 위해 합의각서초안은 한국 육군에 보내졌다. 한국 육군은 언어 및 조항에 대해 약간의 차이를 드러냈으나 이는 미태평양육군사와 육군성과의 현지 회의 및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다.

주한미군사령관과 대한민국 국방부는 74년 11월 25일에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사본을 육군성, 태평양 중양탄약관리사무소 및 한국육군에 내려보냈다. 이후 SALS-K 실행을 담당하는 한미연합탄약조정단(CACG)을 구성하기 위한 SALS-K실행계획 초안준비가 시작되었다. 한미연합탄약조정단은 유엔사/주한미군사/미8군사⁹⁾ 및 한국육군의 군수참모차장이 서명한 현장에 의

6) USFK, 1974 Annual Historical Report, p.104

7) 미국의 대외군사원조를 뜻하는 용어는 ‘안보지원’이다. 안보지원(Security Assistance)이란 “1961년의 대외원조법과 1976년의 무기수출 통제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따라 미국 정부가 군사물자, 군사 훈련 및 기타 군사관계 용역들을 무상 또는 판매의 형식으로 외국에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안보지원은 ‘군사지원’, ‘군사판매’, ‘방산협력’ 세 가지 형태로 대별된다.

8) 한국국방연구원, 『미국의 안보지원정책 평가와 대책』, (1984), p.70참조

9) ACoS(Acting(Assistant) Chief of Staff), J4(병참) ROKA (Deputy Chief of Staff for Logistics)

해 74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실행계획초안은 75년 6월 본부기관 및 예하사령부에 배포되었다. 한미연합탄약조정단은 75년 7월 24일 재소집되었으며 이때 주한미군과 한국육군 고위 병참대표가 계획에 서명하고 실행 지시에 서명했다.

75년 8월 한미연합탄약조정단 회의에서 첫 번째 SALS-K실행지시 준수상태에 대해 검토했다. 1a단계, 탄약보급소(ASP)056 이양을 위한 대부분의 조치가 75년 9월 1일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결정한 한미연합탄약조정단은 1b단계 탄약보급소 063의 이양을 시작했다.

그 당시 실행지시2호와 SALS-K 규정 37-5호는 한미연합탄약조정단 고위담당자가 서명했다. 탄약보급소063¹⁰⁾은 11월 1일 한국육군으로 이양되었고 75년 12월 15일 실행지시 3호가 발표되어 탄약고(AD)053을 76년 1월 1일까지 이양할 것을 요청했다.

그날 한국육군은 SALS-K 하에서 탄약고(AD)053의 이양에 수반되는 접수, 보관, 발행 및 물리적 경계기능을 맡았다. 탄약유지에 대한 책임은 미군에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76년 12월 9일 한미연합탄약조정단회의는 탄약보급소056 및 탄약고053에서의 포장 및 보존·유지업무 이양시점을 77년 3월로 정했다.

탄약정비·개조 기능은 한국 육군이 필수기술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때 이양하기로 했다. 잠정적으로, Camp Thompson¹¹⁾은 77년 7월 1일, 마산탄약고¹²⁾는 77년 10월 1일을 각각 이양 날짜로 설정했다.¹³⁾ 창원시에 따르면 이 날짜는 2년 뒤로 미루어져 1979년에 한국군에게 이양되었다.

탄약보급소056 및 탄약고053에서 한국 육군이 포장 및 보존업무를 인수함으로써 1b단계 및 개조기능을 제외한 모든 2단계가 완료되었다. 캠프 톰슨과 마산탄약고 이양까지 이루어지면 SALS-K 3단계 및 5단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¹⁴⁾

정리하면 1970년 390만㎡가 미군에 공여됐고, 미군은 이곳에 탄약창을 건설했으며 1979년 탄약창 274만3000㎡를 국군에 인수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115만7000㎡(35만평)는 간간이 미군 사격장으로 사용되어 왔다.¹⁵⁾ 그러나 1972년 당시의 마산탄약고모형에는 사격장으로 보이는 어떤 시설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격장은 탄약창 건설이후에 별도로 건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격장건설이 미군의 공여사유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1971년 미육군소유탄약의 저장관리를 한국군에게 위탁을 위한 SALS-K협정이 시작되었고 이 협정에 따라 한국군에 이양하기 위해 마산탄약창을 미국예산으로 지었다. 한국군에게 탄약과 시설과 관리방법을 모두 이양·전수해 주면서까지 미국은 왜 탄약관리를 한국군에게 위탁코자

DCSLOG)

10)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위치. 육군 51탄약대대로 이양.

11) 안양시 박달동 위치. 육군50탄약대대로 이양, 전략무기창(Strategic Arms Depot:SAD)200으로도 기록됨.(Nicolai Kryloff with Joshua Pollarine and Lindsey Weaver, *BUILDING STRONG IN KOREA-A History of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Far East District*, (U.S. Army Corps of Engineers, Far East District Camp Humphreys, South Korea 2019), p.64) 2018년부터 지하탄약고화 추진

12) 마산탄약창은 AD 051이었다. Earle Whitmor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ENGINEER DISTRICT FAR EAST 1957 to 1975*. (Seoul: Far East District, 1976), pp.102

13) Earle Whitmor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ENGINEER DISTRICT FAR EAST 1957 to 1975*. (Seoul: Far East District, 1976), p.102

14) USFK,EUSA, *1976 Annual Historical Report*, pp.151-152

15) 「창원시 팔용산 기슭115 만㎡ 미군 땅 있다」, 『경남도민일보』, (2011.7.1)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364>

한 것일까? 1974년에 체결된 SALS-K 합의각서는 한국이 20개 사단 규모의 45일분어치의 탄약을 전쟁예비탄약으로 저장하고 그 부족분을 미국이 채우는 것으로 하였다. WRSA-K는 바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한국에 도입되어 왔다. 이를 뒤집으면 WRSA-K를 한국에 들여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SALS-K 합의각서 체결이 한국에 강요되었다고 할 수 있다.

WRSA-K탄은 구형 총, 포탄, 폭탄,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280여종(60만t 5조원 규모)으로 알려졌다. 전쟁예비물자의 90%에 달한다. 하지만 2003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추진되는 미군의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이에 따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검토(GPR) 등과 연동해 미군이 보유하던 세계 곳곳의 WRSA탄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WRSA탄을 관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주된 이유다. 미국은 2003년 WRSA-K 폐기법을 마련, 2005년말 발효시켰다.

이어 미국은 2008년 WRSA-K탄을 미 본토로 가져가 폐기하기로 했지만 운송비와 폐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협상을 요구했다. 미측은 ‘공정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WRSA탄을 처리토록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한국에 공정가격으로 WRSA탄을 구매해 주도록 요구했고 협상은 타결됐다.¹⁶⁾ WRSA탄 양도각서¹⁷⁾에 의해 한미단일탄약보급체계(SALS-K)는 종료가 선언되었다.¹⁸⁾ 그러나 과연 양도각서대로 SALS-K는 종료된 것일까?

현재 마산탄약고를 비롯 한국군의 탄약고에 있어 과거 한미단일탄약보급체계(SALS-K)와 전쟁예비탄약 양도각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6) 「미국에 빌려준 포탄은 ‘WRSA-K탄」 『아시아경제』, (2023.04.12.)
<https://military.asiae.co.kr/view.htm?idxn=2023041210054355598>

1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한국 내 미국의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로부터의 탄약, 장비 및 물자의 양도에 관한 합의각서’(2008년 11월 26일)

18) 전쟁예비탄약 양도각서 제7조 ‘미국이 한국으로 부록 가에 수록된 탄약, 장비 및 물자의 양도를 완료하는 때 또는 2008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전쟁예비물자-케이 프로그램은 종료된다.’